

명품 전주복숭아 축제 ‘팡파르’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서 오늘까지... 주력품종 1상자 당 3kg 기준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19일 20일 양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명품전주복숭아 축제를 개최한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우범기 전주시장, 정운천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내 농축협 조합장 전주농협 임원 재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개막식을 개최했다.

축제 기간에는 과중, 크기 당도 등 규격과 품질검증이 완료된 정택백봉, 마도까 대옥계 등 주력품종들이 1상자 당 3kg기준으로 소비자가보다 20~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전주 복숭아가 주재료인 복숭아 아이스크림 복숭아 품평회 전주농협 여성조직 품물공연과 축하공연, 행운권추첨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로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마련돼 있다.

한편, 복숭아는 천연 알카리 성분이 많아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 좋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농협이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명품 전주복숭아 축제가 19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정운천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내 농축협 조합장, 전주농협 임원, 재배농가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 임인규 조합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개최하던 행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1970~80년대만 해도 전주와 전주 인근에서 생산한 복숭

아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90%에 달했지만 지금은 많은 곳에서 재배되다 보니 전주를 대표하는 복숭아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아 아쉽다”면서 “우리 농민들도 내 자녀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농사짓고, 여기 오신 의원님들이나 전주시가 농업 정책의 아쉬운 부분을 힘써주셔서 복숭아의 명성을 되찾고 농민께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공익 법인 기부금 단체 지정

경진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모금 가능해져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 법인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공익 법인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 이번 지정은 경진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온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 경진원은 공식적으로 개인, 단체, 법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기부자는 정기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를 인정한다.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개인 소득 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 공제 받게 된다. 단 개인 사업자가 기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공익 법인으로 지정된 경진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억 원을 보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수인 모델과 진출 분야 등 질적 측면에서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어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ESG 상생 경영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 도입으로 지역 인재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 개발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인건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두손푸드 △완주로컬푸드(영) 건강향배상 △하늘꽃간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주)두손푸드는 유아용 이유식 신제품개발, 완주로컬푸드(영) 건강향배상은 로컬푸드 밀키트 개발, 하늘꽃간은 스무디형태의 과채주스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이번 기부금을 출연한 국민연금공단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과 합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첫 발을 막 내딛은 만큼 앞으로 기부금을 통한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 우수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우리 것이 최고’...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눈길’

농촌진흥청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를 위해 유통업체, 게임회사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현대백화점, (주)코리아세븐, (주)네오게임즈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이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식품 소비 촉진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진청, 유통업체·게임업계 등과 손잡아 농식품 판로 확대·소비 촉진 등 성과 창출

올 맞아 노란색 사과 ‘황옥’, 과즙이 풍부한 배 ‘황조’, 껍질째 먹는 포도 ‘스텔라’, 털이 없는 천도복숭아 ‘실홍’ 등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과일 품종을 중심으로 기획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편의점 음료로 변신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토를 운영하는 (주)코리아세븐과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편의점 전용 음료 제품 생산을 위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3종의 음료가 출시됐는데, 지난 3월에 제주 강소농(強小農) 분계회 농가의 천혜함육 원료로 한 ‘제주천혜함육에이드’를 시작으로, 5월에 차 분야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최영기 농가의 녹차로 만든 ‘빙인녹차’가 나왔다. 이어 6월에 경북 상주 강소농 신경순 농가에서 생산한 곱감을 원료로 한 ‘상주 곱감 수절과’를 선보였다.

특히 제품 길이에 원료를 재배·생산한 농업인의 얼굴과 이름, 농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해 제품의

특성을 부각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였다. 이 가운데 제주천혜함육에이드 음료는 전체 생산량 60만 개가 7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반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년농업인이 재배·생산한 포도와 복숭아를 이용해 7월에 ‘사인머스켓에이드’와 10월에 ‘허니복숭아에이드’를 각각 출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과 (주)코리아세븐은 올해 하반기에 국내 육성 품종 과일을 원료로 한 주스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육성 사과 1호 품종인 ‘홍로’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배·감귤 등으로 제품 목록을 넓혀갈 계획이다.

▲농사 체험 게임사용자 맞춤 농산물 온라인 판매 이동통신(모바일) 농사 체험 게임 ‘레알팜’을 개발한 (주)네오게임즈와는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주)네오게임즈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상점 ‘레알리마켓’에서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입점을 희망하는 재배 농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1월에 문을 연 ‘레알리마켓’은 ‘레알팜’ 게임사용자가 주 고객층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만 명이 넘는 게임사용자 온라인카페에 ‘레알리마켓’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를 증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현재 ‘레알리마켓’에 입점한 농가는 7개 농가이며, 전체 판매액은 8,223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판매액은 1,175만 원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주)네오게임즈는 다양한 농가가 온라인상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여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국내 육성 품종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앞으로도 유통업체 및 게임회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해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판매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농진청, 주요 과수·채소 생산 현장기술 지원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확이 높은 주요 과수·채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현재 도(道)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진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올여름 기상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공급물량 감소에 대비하고, 특히 이른 추석에 출하될 과일·채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과수·채소 주산지에 품목별 전문가단을 파견해 재배 및 생육 현황을 점검하고, 농작물 품질 제고와 병충해 예방을 위해 영농

현장별 상황과 농업인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과수 부문 전문가단은 과실의 크기·색·당도 등 품질 요인별로 중점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익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재배기술을 보급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채소 부문 전문가단은 지역별 기상 현황과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동향 등을 분석해 생산량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술 지원을 진행한다.

농진청은 지난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한 ‘주요 노지 발달물 작황 관리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전은 장학문화재단, 군산중앙여고 찾아 ‘JB 인문학 강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후원으로 운영하는 (재)전북은행장 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19일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2022 JB인문학 강화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테리사회’, ‘훈의시대’ 등의 저자이자 북극루 대표인 김민섭 작가가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윤성 기자



특히, 일명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와 유익에 출연했던 소감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성 기자

